

고마운 사스?

김강석 / SBS-TV 보도국 차장

사스의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사스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아직은 기대에 불과하다. 예방백신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극악스런 사스는 이제 우리 삶의 패턴과 생활습관까지 바꿔 놓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사스의 발원지이자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스 때문에 이혼율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감염 우려로 술집, 영화관 등 오락 유흥시설 이용을 기피하면서 시민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부부간 금슬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혼율도 낮아져 베이징시 서청(西城)구 가정법원에는 종전에 1주일 평균 70건이던 이혼 신청이 지난 4월 이후 40건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하고 있다.

새벽까지 놀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중국인의 수면습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길거리에 마구 침을 뱉던 나쁜 버릇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혁 개방 이후 돈벌이와 일에 매달리던 중국인들이 사스라는 위기를 맞아 마음이 넓어지면서 남을 배려하는 풍조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홍콩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주민들이 종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0여명의

응답자들은 사스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75%가 이전보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답했으며 68%는 가족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고 대답했다. 또 어머니들은 소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88%가 가족들의 건강이라고 답해 과거 1위를 차지했던 공부 잘하는 것이라는 소원을 밀어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국이나 홍콩, 대만의 상황까지 가진 않았지만 음주문화 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여럿이 돌려 마시는 돌림잔이나 잔 주고 받기가 점차 줄고 폭탄주 횡포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조짐이다. 마늘 소비가 늘고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 등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요인을 다 합친다 해도 사스라는 天罰의 공포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다. 더욱이 환경오염과 악물 오남용으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날 경우 사스와 같은 재앙은 더욱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수시로 가글을 하는 것과 같은 위생 관리는 말할 것도없고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인격을 수양하는 등 자연의 섭리에 좀더 겸허해 지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神 앞에 인간은 한 톨의 모래만도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111111**